

오순절 후 다섯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sup>TH</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7월 1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05 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통일 23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8 번 시편 6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누가복음(Luke) 24:44-49</b>	양용일 집사
찬 양 Anthem	“하나님의 사랑”	찬양대
설 교 Sermon	<b>“복음의 증인” (Witness to the Gospel)</b>	박상용 선교사 (캄보디아)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더 원합니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05 장 “온 세상 위하여” (통일 26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박상용 선교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감정이 앞서고, 말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과 불안함과 분노를 여과없이 드러내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되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 1:19)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개역개정 **눅24:48-49**)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I am going to send you what my Father has promised; but stay in the city until you have been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 (NIV **Luke24:48-4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10 (주일)	7/11 (월)	7/12 (화)	7/13 (수)	7/14 (목)	7/15 (금)	7/16 (토)
	수12,13	수14,15	수16,17	수18,19	수20,21	수22	수23
본문	시145	시146,147	시148	시149,150	행1	행2	행3
	렘6	렘7	렘8	렘9	렘10	렘11	렘12
	마20	마21	마22	마23	마24	마25	마26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7/13수 오후7:30)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룻3:1-13)
토요새벽기도회(7/16토 오전6:30)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사89:5-18)

지난 주일(7/3)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9)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출 5:22-6:13)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이 생각했던 출애굽은 (단지) 억압받던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되는 것이었지만, (출애굽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출애굽(God's Exodus)은 (사뭇)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출애굽은 (단지) 우리가 사는 장소만 바뀌고, (단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 달라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달라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리적, 장소적 출애굽 이전에, 먼저는 영적 출애굽(Spiritual Exodus)이 일어나서, 오랫동안 익숙했던 애굽(세상)의 문화와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출애굽의 참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참된 출애굽(True Exodus)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참된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1)첫째, 참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 가능하고(출6:1), 2)둘째, 참된 출애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가능하며(출6:7), 3)셋째, 참된 출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가능해진다(출6:9,12)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려질 때,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참된 출애굽(True Exodus)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진정 1)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2)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를 제대로 알며, 3)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참된 출애굽(True Exodus)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